

가지를 가지고 있는 편원주로 흑갈색의 털이 2~3 cm에 이른다.

梅花鹿과 馬鹿은 서로 交尾가 이루어지나 馴鹿과는 交尾를 하지 않는 별개의 種類이다.

梅花와 馬鹿은 숫놈만 뿔이 나고 이 뿔만을 藥用하는데 반하여 馴鹿은 암놈에게서도 숫놈의 것에 버금가는 불이 있는데 이것의 뿔을 암수구별없이 채취 절단하여 시판하고 있다.

만약 이와같이 생태학적으로 또는 형태학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사슴류의 뿔을 분별없이 藥用한다면 모든 사슴目に 속하는 뿔들은 모두 藥으로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새로운 種에 대한 藥用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藥效성분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藥理실험 그리고 임상실험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藥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인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는데도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현재와 같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슴의 뿔과 유사하다고 하여 同屬 近種動物 운운하면서 써도 무방하다는 것은 無知를 자인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소비자인 漢醫師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손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梅花·馬鹿과 馴鹿의 比較表

종류 항목	科	亞科	屬	茸形態	色	毛長	茸長	食性	產地
梅花鹿	Cervidae	Cervidae	Cervus	원주형 2~3枝	홍갈색	1~3mm	20~30mm	草, 穀類 등	溫帶 (中·韓·日)
馬鹿	Cervidae	Cervidae	Cervus	梅花鹿보다 큰 원주형 3~4枝	회색	3~5mm	30~100mm	草, 穀類 등	溫帶 (호주, 뉴질랜드)
馴鹿	Cervidae	Rangiferinae	Rangifer	편압된 원주형 3~4枝	흑갈색	2~3cm	30~108cm	藓, 羊齒類 등	寒帶 (시베리아)

양록업계 不況 원인과 대책

양록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양록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양록업이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더욱이 양록업계의 이런 어려움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상태로 지속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업계 내에서는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양록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올해부터 정부의 수입 개방화예시에 의해 사슴이 수입돼 사슴가격이 큰 폭

으로 하락한데다가 유통까지 마비돼 농장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발생했던 사슴피 세균오염파동 및 혐오보신제 파동등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져 주생산물인 녹혈·녹용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양록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태가 올해를 끝으로 반전,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어 양록인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 꽃사슴·엘크등 2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고 밝힌 **노모씨**는 『예년의 경우 녹혈을 복용하기 위해 단체로 소비자가 농장을 방문하는 등 녹혈·생녹용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작년의 사슴피 세균오염파동의 영향으로 올해는 손님이 크게 줄어 인건비·사료대등 사육비 마련에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록업계의 이러한 어려움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어차피 사슴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사슴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지 업계의 위기를 양록산물의 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전기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양록업이 안정적으로 산업화된 축산으로 자리잡기 위한 여건 및 분위기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양록업 영위에 대한 특소세·축산법 개정·약사법개정등 불합리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양록인들 간의 불화로 인해 일과성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 업의 영위를 위해 해왔던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슴사양이나 판매방식으로서는 현재보다도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버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감히 현재제를 탈피, 양록업계의 위상적립과 함께 산업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인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와함께 양록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서도 새로운 홍보책마련을 위시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양록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사슴 유통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과다경쟁을 배제하고 양질의 사슴을 확대공급함으로써 수입사슴이 설자리를 없게해 국내 사슴업계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양록업계가 안고 있는 불안구조를 혁신시킬 만한 대안은 없다』고 전제하고 『양록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록산물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구조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슴이 가격에 있어 결코 국내생산 사슴보다 싼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전국의 양록농가가 수입사슴의 단편적인 면에 현혹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양록업에 종사한다면 빠른 시안안에 업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축산신문기자. 김 한 응.

녹용유통 활성화대책 시급

양록업을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 육성하고 녹용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녹용에 대한 유통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양록업계는 올해 사슴수입자유화로 인해 경

기가 침체된데다 한의약계의 수입녹용 선호경향으로 녹용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양록업계는 수입녹용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과 국산녹용의 유통활성화대